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9. 2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터키, 'ISIS 조직원 모집' 외국인 4명 체포
 - 9.21 현지 언론은 터키 경찰이 남동부와 서부에서 ISIS에 가담할 새 조직원을 모집하고 이들을 무장시킨 혐의로 외국인 4명을 검거했으며, 이 중 1명은 ISIS 처형팀에서 활동한 대원이었다고 보도
- 스페인, 테러기도 혐의로 카탈루냐 독립주의자 체포
 - 9.23 AP통신은 경찰이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2주년('19.10.1)에 맞추어 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카탈루냐 분리주의 단체 '공화국수비위원회'(CDR, '17년 설립)와 연계된 용의자 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 - * 경찰은 사무실 등을 수색해 폭탄제조 원료물질과 장비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

미주

- 美, 이란 경제제재 단행 및 사우디·아랍에미리트에 병력 증파
 - 9.20 美 정부는 이란 국영 중앙은행·국가개발기금·에테마르 테자라테 파르스(국부펀드)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한편,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대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걸프지역에 미군을 증파한다고 발표
- 美 국토안보부, '백인우월주의 폭력 안보위협 경고' 보고서 발표
 - 9.21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ISIS·알카에다 등 해외조직에 의한 테러 못지않게 미국내 극단주의 성향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, 그 중 백인우월주의가 가장 큰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분석
- 美 FBI, 주요 방송국 등 테러기도 현역군인 체포
 - 9.23 FBI는 CNN 방송국 폭파 기도 및 민주당 대선후보 「오로크」前 의원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캔자스주 軍기지 소속 육군 일병을 검거
 - * 同인은 페이스북에 사제폭탄 제조기법을 게시하고 '아프간 스타일'이라고 소개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, 총리 겨냥 테러모의 첩보에 경계 강화

- 9.25 인도당국은 파키스탄 국방정보부(ISI)와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시-에-무함마드(JeM)가 「모디」 총리를 겨냥한 테러를 모의중이라는 첩보를 입수, 주요 도시에 대한 경계강화를 실시중이라고 발표

○ 필리핀, 폭탄테러 혐의로 ISIS 추종 반군 4명 체포

- 9.25 필리핀軍은 지난 7일 이슬란市 시장에서 폭탄테러(부상 8)를 자행한 ISIS 추종 극단주의 무장단체 ‘방사모로이슬람자유전사단(BIFF)’ 소속 터키계 스웨덴人 1명과 필리핀人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
중 동

○ 예멘 후티 반군, 사우디에 ‘상호 군사행동 중단’ 제안

- 9.20 AFP는 「마흐디 알마샤트」 후티반군 최고정치위원회 의장이 분쟁 종식을 위해 “사우디 영토에 대한 무인기(드론)·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공격을 중단했다”며 상호 군사행동 중단을 제안했다고 보도

* 사우디 당국은 同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이란이 테러 배후라는 기존 입장 유지

○ 이집트, 카이로 암연구소 테러 용의자 사살

- 9.21 내무부는 지난달 초 발생한 카이로 암연구소 테러사건 용의자로 무슬림형제단의 무장돌격대인 ‘하شم’(Hasm)의 은거지를 기습하여 테러 용의자 1명을 사살했다고 보도

* 8.4 카이로 암연구소 인근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쇄충돌 후 폭발(사망 20, 부상 47)

아프리카

○ 보코하람, 나이지리아 차드湖 근거지 대거 이탈

- 9.19 나이지리아 軍당국은 보코하람이 다국적軍의 공격으로 차드湖 인근 근거지를 이탈해 아프리카 북동부로 이동하고 있다고 발표

이란, 군사퍼레이드 충격테러

- '18.9.22 이란 남서부 아흐바즈市에서 이라크의 이란 침공 38주년을 맞아 개최된 열병식中 무장괴한의 무차별 충격으로 군인·어린이 등 29명 사망·60여명 부상



* 이란에서는 매년 이란-이라크戰 개전일(9.22)에 전국적으로 열병식 개최

- 이란 군복으로 위장한 테러범들은 관중과 軍고위관리를 향해 충격을 가했으며, 3명은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부상당한 1명은 체포 후 사망
- 테러 직후, ISIS와 이란內 아랍계 분리주의 조직인 '알아흐바지예'가 각각 테러 배후를 자처하였으나,
 - 외신 및 전문가들은 ISIS가 근거지 상실 후 존재감 과시를 위해 허위로 테러 배후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
 - 이란 당국도 사우디와 연계된 '알아흐바지예'의 범행으로 판단하고, 이들의 근거지를 급습해 공범 22명을 체포하고 폭발물 등 압수
- 또한, 이란은 미국과 중동內 美동맹국들이 同 테러단체를 지원하였다며 미국·사우디·UAE 등을 맹비난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드론 비행금지구역 >

- (의의) 국방, 국가중요시설·항공기운항 보호 등을 위해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(비행시 승인 필요)
- (근거) 「항공안전법」 제127조, 同 시행규칙 제310조 등
- (대상) 청와대 주변(강북지역 대부분), 휴전선 인근, 원전 주변 18.5km, 비행장 주변 9.3km, 기타 지정구역
 - ※ 서울지역 대부분은 비행제한구역(R75)으로 승인 필요
- (처벌)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(항공안전법 제166조)
 - ※ 25kg 초과 드론은 미승인 비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(항공안전법 제161조)

